



현직 판사가 부친 유품 검찰에 기증

40~50년전 검사모·신분증 등 검찰사 회귀 자료

현직 부장판사가 1950~70년대 검사로 재직했던 부친의 검사복 등 귀한 유품을 검찰에 기증했다.

최근 검찰과 법원이 영장 발부·판결 양형 문제 등으로 이견을 보이는 등 간간이 갈등 양상을 빚는 가운데 법관이 검찰사(史)적으로 귀중한 사료를 흐믓해 기증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현승(사법연수원 13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부친인 고(故) 이정선(1916년생) 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검사 재직 시절 공무원증과 검사모(帽), 검사복, 법학도서 등을 검찰에 기증했다.

기증된 공무원증은 1953년 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사 시절 신분증이며, 검사모와 검사복은 1960년 광주지검 검사 및 정읍지청장 시절 입었던 것이다.

당시 검사 신분증은 총무처장관 명의로 1월1일 발행됐으며, 앞면에는 사진과 함께 연번·소속·신분·성명 등이 기재돼 있고, 뒷면에는 총무처장관의 영문 서명이 적혀 있다.

현재 검찰 사료는 1960년대 이후 신분증 밖에 없어서 1950년대 신분증은 가장 오래된 것이다. 검사모·검사복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해 귀중한 자료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안순일 교육감, 국제 광주대표 송원여성 격려



안순일 광주교육감은 10일 오후 제38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배구 광주대표로 출전하는 송원여성(여고부) 배구팀 훈련장을 방문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광주 대성여중, 현대무용 군무 단체 금상 수상



광주 대성여중(교장 최재홍) 무용부가 지난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종합예술학교 주관으로 열린 '제3회 통일부 장관배 전국무용 경연대회'에서 중학교부 현대무용 군무 부문 단체 금상을 수상했다.



이상우, 발달장애 아들과 '인간극장' 출연

가수 이상우가 방송을 통해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공개한다.

이상우는 10일부터 5일간 승훈이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가족 이야기를 담은 KBS 2TV 인간극장 '고맙다, 아들이' 편에서 아들 승훈(14) 군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결혼 3년 만에 얻은 승훈이가 30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들이 어느 아이들과 조급은 다음을 발견했다. 애타게 듣고 싶던 '아빠'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아들은 발달장애라는 관정을 받았다.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날을 술로 지새웠던 이상우 부부는 승훈이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고 "아빠,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는 승훈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깨달았다.

이수영(28)이 병원에서 8집을 발표하며 컴백한다. 아픈 어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수영은 12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이수영과 함께 하는 내일의 아이들'(가제)이라는 타이틀로 노래 선물을 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니라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선물로 마련된다.

소속사 해브엔터테인먼트는 "이수영은 8집 기획회의 때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노래 선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음반을 흥보하는 수단보다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입소문 효과 보여 드릴게요”

■ '총장로 축제' 명예 홍보대사 탤런트 임현식씨

“광주에서 초·중·고 다녀
총장로에 억힌 추억 많아
향수 느끼는 축제 돼야죠”

"총장로는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며, 총장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입소문을 내겠습니다"

"2007 총장로 축제" 명예 홍보대사를 맡아 10일 광주를 찾은 탤런트 임현식(63)씨는 총장로 곳곳을 둘러보면서 학창시절 추억들을 하나 둘 꺼내놓았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향인 전북 순창을 떠나 피난왔던 곳이 광주였고, 중앙초교·동중학교·살레시오 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총장로에 얹힌 추억이 많았다.

그는 "최근 출연한 총장로 축제 홍보 동영상을 보고 주변에서 고등학교 교복이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레코드 가게에서 울려펴자던 틈조준이 부른 팝송 'proud mary'를 헥얼거리며 제일극장, 영화당 등 총장로 곳곳을 걸어다니곤 했었다"고 말했다.

매달 한 번씩 호남대학교 대마체영상학과 강의를 위해 광주를 찾는 그는 일본에서 방영된 '대장금'·'허준' 등이 인기를 끌면서 일본 현지 행사가 많아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비쁜 스케줄에도 그가 선뜻 무보수 명예대사에 응한 것도 총장로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

그는 추억이 담긴 총장로를 위해 지난 1월 제작된 축제 홍보 동영상에서 70년대 교복을 입고 "제가 바로 그 당시 총장로·황금동·금남로를 희를 치고 다녔죠, 여러분 총장로 축제 꼭 오십시오"라는 애드리브를 쏟아냈다.

또 10일에는 축제 홍보를 위해 총장로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팬 사인회 등을 열었다.

그는 "총장로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픽광기자 kroh@kwangju.co.kr

전도사 변신한
코미디언 이순주씨

1960~70년대 최초의 여성 MC이자 코미디언으로 맹활약하며 웃음을 선사했던 이순주(65)씨가 전도사로 변신, 미국 LA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다.

그는 현재 코리아타운에 미주기독교방송에서 방송위원으로 재직하며 오전 8시 뉴스와 10시의 생방송 토크 쇼 '아름다운 만남', 오후 3시의 대담 및 시사프로그램 '오후의 레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라벌에 1학년 재학중 제일소녀 가극단 단원 50명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응시해 뽑힌 뒤 송해-박시영, 구봉서-후라이보이, 서영준-백금녀 등 코미디언들이 콤비를 이뤄 활동하던 극장 쇼무대를 쫓아나왔다.

“광양항 성장세… 컨 물동량 다양화 필요”

■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에릭 히트 브링크 이사장

"컨테이너 물동량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Shipping & Transport College) 한국분교 개소식 참석을 위해 10일 광양을 찾은 에릭 히트 브링크 이사장의 조언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광양항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물동량에만 매달리지 말고 선조선 등 다양한 항만 연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히트 브링크 이사장은 "부산항과 함께 광양항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물동량에만 매달리지 말고 선조선 등 다양한 항만 연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히트 브링크 이사장은 "한국 분교의 경우 오늘부터 21일까지 네덜란드 본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베트남인 14

명, 한국인 8명, 중국인 2명, 미얀마,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인 각 1명 등 총 28명을 대상으로 해운·물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 정규 석사 과정을 개설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양항에 한국 분교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한국 대학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부산항과 인천항 주변에는 항만·물류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지만, 광양항 주변에는 그러한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국분교 자체 캠퍼스를 건립할 의향에 대해 히트 브링크 이사장은 "현재 한국분교가 들어서 있는 월드마린 센터(2,5,6층) 규모가 충분하지만 학생 수요와 학교 측의 필요에 따라 수



년 내에 자체 캠퍼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히트 브링크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한국 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 관련 종사자들의 영어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합리적 대안·방향 제시, 경쟁력 제고”

전남대 평의원회 의장 최용국 교수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시켜 평의원회가 명실상부한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동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전남대 최고 심의 및 대의기구인 평의원회 의장에 선출돼 최근 취임한 최용국(56·자연과학대학 화학과·교수 협의회장 겸직) 교수는 "적극적 활동으로 평의원회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09년 8월 말까지 2년 동안 평의원회를 이끌어갈 최 의장은 "전남대는 국내·외 대학과의 무한 경쟁, 대학 구조조정, 특성화, 국립대학 법인화 등 수많은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면서 "어떠한 사안이든 전남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경기자 hwangtae@

인사

- ◆ 광양시 ◇ 7급 <승진>
- ◆ 골악동 최현아 ▲ 진월면 남명우
- ▲ 광동동 유관표 ▲ 문화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김태수 ▲ 다압면 김나균 ▲ 항만도시국 허인순

부음

▲ 광주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

주간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정신장애인들에게 조속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 무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문의 262-4379

▲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노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 힐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이화회(회장 이정근) 월례회=11일(화) 오전 11시 지원회 회의실. 225-5631

▲ 진양하씨 광주 화수회(회장 하준택) 유적지 답사 및 관광=14일(금) 오전 8시 빅스포 앞. 011-607-3369

모집

▲ 횡성군립체육관

체육관 이용권 판매 모집=체육관 이용권 판매. 문의 052-227-4000

▲ 양창목(전 여수세무서장·세무사)씨 별세 상운(재미 사업가)·학철(원광대 미대 교수)·학연(사업)씨 부친상 이기호(전 노동부 장관)·박훈(원 베스트 벤처 투자 파트너)씨

별상=발인 11일(화)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 박학심씨 별세 강선태(유나이티드 디엔피디자인 대표)·태웅(자영업)·수경(광주여대 교수)씨 모친상 최기충(세운약국 약사)·김도한(롯데카드 영업지원팀장)씨 빙모상=발인 11일(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2-2072-2014

▲ 김호장례식장

고품격! 저비용! 대형주차장!
내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대표 구파 김-

금호장례식장

전화 T.062-941-4400

광주금호장례식장

전화 T.062-227-4000

광주금호장례식장

전화 T.062-521-1100